

경제협력개발기구 각료이사회에서 포용적 성장을 위한 경제 역동성 제고의 중요성을 강조

- 수석 이코노미스트와 한국경제 동향을 점검하고 영국 재무차관과는 경제·금융 분야 협력 확대 및 FTA 개선 협상 등 논의
- 파리 주재 우리 공공기관을 통해 프랑스의 산업전략 방향과 우리 기업 수출·투자 여건 변화를 파악하고 우리 정부 정책의 방향성을 점검

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5.2~3일 이틀에 걸쳐 진행된 경제협력개발기구(이하 OECD) 각료이사회에 참석하였다. 또한, 이번 회의 참석을 계기로 클레어 롬바델리 OECD 수석 이코노미스트 및 샬롯 베레 영국 재무부 정무차관과 면담을 가지고, 프랑스 주재 우리 공공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.

1. OECD 각료이사회

OECD 동남아시아 프로그램* 출범 10주년 기념식에서 회원국들은 동남아시아 지역의 전략적 우선순위를 재확인하였다. 김 차관은 동남아 프로그램 10주년을 맞아 향후 아세안 국가들의 OECD 가입 등 가시적 성과 도출에 대한 기대를 표하며 한국의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밝혔다.

* 비회원국을 대상으로 OECD의 가치 전파·가입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'14년 출범

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경제·사회 달성 방안을 논의하는 세션에서 김 차관은 회원국들과 인구구조·기후 변화와 같은 전지구적(글로벌) 도전에 대한 해결책을 토론하였다. 김 차관은 구조적 도전 요인 타파를 위한 한국의 역동 경제 정책 방향을 소개하며, 포용적 성장을 위한 민간 혁신, 공정한 경쟁, 높은 사회이동성의 중요성을 피력하였다.

다음으로 김 차관은 경제회복력 세션에 참석하여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큰 오늘날 경제회복력 제고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과 자유로운 무역체제의 회복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. 우리의 경험에 비추어 민간협력 확대 및 국제협력 다층화를 통한 공급망 안정화 방안을 제안하는 한편, 비시장적

정책의 확산에 대응한 OECD의 더욱 적극적인 분석 및 모니터링 역할을 당부했다.

2. OECD 수석이코노미스트 면담 결과

김 차관은 5.2일 클레어 롬바델리(Clare Lombardelli) 현직 OECD 수석 이코노미스트 및 6월 차기 수석 이코노미스트로 부임 예정인 알바로 페레이라(Alvaro Pereira) 부국장을 만나 한국경제 동향 등을 논의하였다.

김 차관은 한국의 1분기 GDP 성장률이 민간주도, 수출·내수 균형 속에 높은 수준을 기록한 점을 설명하고 각료이사회 계기 발표된 OECD의 성장 전망치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.

3. 영국 재무부 차관 면담 결과

김 차관은 5.4일 샬롯 베레 영국 재무부 정무차관을 만나, 양국 간 경제·금융 분야 협력방안 및 한-영 FTA 개선 협상 등을 논의하였다. 김 차관과 베레 차관은 7월에 개최예정인 양국 재무당국 간 고위급 경제금융 대화에서 주요 이슈를 아우르는 건설적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제 발굴 등 준비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. 이어서 김 차관은 양국간 교역 관계가 더욱 고도화되길 기대한다고 언급하며 한-영 FTA 개선 협상의 상호호혜적 결과 도출을 위한 영국 측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하였다.

4. 프랑스 주재 공공기관 간담회

김 차관은 무역보험공사 등 프랑스에 진출한 공공기관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지 경영 여건 등을 논의하였다. 주불 공공기관들을 통해 프랑스의 산업전략 방향을 점검하고 우리 기업의 수출 및 투자 여건 변화를 논의하였다.

담당 부서	대외경제국	책임자	과 장	이재완	(044-215-7610)
	대외경제총괄과	담당자	사무관	정찬구	(jck0123@korea.kr)